



맨정신 술자리

나는 헤비 드링커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주종 크게 개의치 않고 술 한두 잔은 마시며 그 분위기를 즐기는 편이다. 비 오는 날 해물과전에 막걸리 이야기가 나오면 막걸리를 별로 안 좋아하면서도 크게 동요되고 아무리 배가 불러도 친구들과의 치맥(치킨 & 맥주)을 거부하는 법이 없는 편이랄까..... 그런데 며칠 전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 술이 등장했고 애석하게도 나는 단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다(전날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는데 3일간 금주해야 했고 백신 후유증이 무서워서 권고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었음).

시작은 좋았다.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봉사하는 셈 치자 싶어서 우리 집을 오픈하고 안주도 푸짐히 차렸으며 잔이 빌 때마다 열심히 술도 따랐다. 친구들과 처음 몇 번은 건배할 때마다 끼워주며 금주 중인 나를 안쓰러워하더니 언제부턴가 나는 안중에도 없이 술잔과 건배가 오가기 시작했다. 빈 맥주잔이 꽤 수북이 쌓여갈 때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나는 맨정신으로 도저히 그들의 텐션을 쫓아갈 수 없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조금 민감하고 위험한 화제에 들어서고 말았다. 다른 이야기들은 뭐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누군가 나를 오지랴가 심한 오지라퍼라고 칭하자 모두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술자리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는 것은 명창한 짓이지만 이젠 뭔가 묘하게 신경이 쓰였다.

그렇게 아슬아슬했던 나만 안 취했던 술자리가 끝나고 다음날, 맨정신이었던 내 기억은 지나칠 정도로 또렷했다. 특히 나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은

그날 밤 세수하다가도 생각이 났고 자려고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날 판이라 그 다음 날 그 술자리에 함께 있던 한 친구에게 물었다.

“내가 왜 오지라퍼야?”
 “오지라퍼가 어때서? 사람들한테 관심 많고 잘 챙겨주는 거 그거 좋은 건데?”
 “무슨 소리야? 오지라퍼는 아무한테나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이니 안 좋은 거지. 난 오지랴 떠는 사람이 제일 싫는데.....”

정말 그랬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불필요한 참견을 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안 친한 사람이 선 넘는 것도 매우 불편해하는 나였다. 그런데 나보고 오지라퍼라니! 한국에 온 이후 지난 3년간 그 누구보다 가깝고 친하게 지낸 친구들의 발언이었기에 그 충격이 더욱 컸다. 혹시라도 내가 오지라퍼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서 사전까지 검색해봤지만 분명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억울함과 배신감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다.

남편은 나를 만난 이후 줄곧 술 없이 술자리를 지켜온 사람이다. 정말 술을 단 한 모금도 하지 않으며 술자리에서 콜라 마시며 술 마신 사람들을 상대해온 전설의 사나이! 지금이야 술 많이 마실 일이 별로 없지만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20대 때는 정말 즐기차게 술을 마셨었다. 술 때문에 그 당시 남자 친구였던 남편에게 혼나기도 다반사, 그때 쓴 각서는 어디 갔지? 하지만 남편은 알코올에 힘을 빌려 취중진담 같은 걸 하는 것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그건 당신

이 술을 안마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치부해왔다. “술을 모르면 낭만도 모르지” 하는 말도 안 되고 뜬금없는 논리까지 내세우며 술 못 마시는 남편을 타박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술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찌나게 술에 취한 사람들과 어울려보니 이거 꽤나 곤욕스러운 일이었다. 함께 취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술 취한 눈동자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고 동작이 커진 이들이 흑술잔을 깨진 알을까 한밤중 큰 소리에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 조마조마해서 온전히 즐길 수조차 없었다. 나도 이들과 함께 열근하게 취했다면 모르고 넘어갔을 일들이다. 암튼 그날 맨정신으로 술자리에 앉아있으며 지난 20년간 술 한 모금 마시지 않으면서 술자리는 물론 내 곁을 지켜준 남편이 그렇게 경이롭고 존경스러울 수 없었다. 술 없이 술자리를 지키는 것은 거의 보살의 마음과 다를 바 없구나 싶었다.

그나저나 혈액형 O형(내 혈액형)의 성격은 단순하고 뒤끝이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별자리, 사주팔자, 관상, MBTI 다 뒤져봐라. 뒤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누구나 어떻게든 뒤끝은 있긴 마련, 술자리에서도 늘 말조심하고 특히 맨정신인 사람을 조심하라!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부에나파크 타운홈 699천

방 3개 화 2.5개 1721 sqft 2015년
 보시면 바로 사랑에 빠지실 매물입니다. 넓은 거실, 넉넉한 수납공간의 부엌, 부에나 유명 소스몰 건너편



사이프레스 단독 주택 978천

방 5 화 3 2200 sqft
 한주인이 관리 잘한 집, 최고의 학군, 수영장, 새 파이프, 새 워터히터, 새 에어컨



어바인 타운홈 84만불

방 3 화 3 1907sqft 2002년
 노스팩, Turn Key, 넓고 확트인 부엌



라하브라 타운홈 425천

방 2 화 2 1982년
 넓은 주거 공간 오픈 플로어 플랜, 마당있는 타운홈

어바인 타운홈 렌트
 깨끗한 새집
 새로 리모델링 한집
 방 2개 화 3개
 *학군 좋은 곳
\$2,800

풀러튼 타운홈 렌트
 방3 화3
 비치와 로즈크랜 근처
 깨끗한 단지, 공원 근처
 수영장
\$3,150

OC 사무실/창고 리스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창고 리스 전문
 다량의 리스팅 있으니
 연락 주세요
 본인의 업종에 맞게
 새로 셋업 해드립니다.

렌트/리스 전문
 *남가주 어느 지역의
 렌트 리스도
 내집 찾는 것 처럼
 찾아 드립니다.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정상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7일 안에 팔아 드립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